영어어문교육 *제23권* 2호 2017년 여름

영어 교과서에서 대조 연결사 'however'와 'but'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김 향 숙
(한양여자대학교)

Kim, Hyang-Sook (2017). A corpus-based analysis of contrastive connectors of 'however' & 'but' in Korean English textbook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2), 17-36.

This study provides new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 of learners overusing the term 'however'. It examined the contrastive connectors of 'however' and 'but' from the Korean English textbook(KET) and American English textbook(AET) based on two different opinions. The first one is in favor of placing 'but'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or clause(BSC) instead of 'however', since 'however'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when placed inside the sentence or clause(ISC), and the second one is in favor of placing 'however' at the BSC along with 'but'. Results show that AET uses a high frequency of 'but' instead of 'however' at the BSC, and a low frequency of 'however' at the ISC.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AET, KET uses 'however', 27.5 times more at the BSC and 'but' about half as much. The frequency of 'but' and 'however' in KET presents roughly the same. Thus, AET represents the first opinion, and KET represents the second opinion. KET is found to be different in that it prefers to use 'however', relatively more frequently than 'but' at the BSC. According to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which could help to deal with the overuse of 'however' by learners.

[English reading textbooks/corpus-based analysis/contrastive connectors, KET/AET/영어 읽기 교과서/코퍼스 기반 분석/대조 연결사/한국 영어 교과서/미국 영어 교과서]

I. 서론

코퍼스 언어학에 기반한 연결사에 대한 연구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어휘 중 하나가 'however'이다. 'however'를 다룬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대개 원어민에 비해 과도하게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며(고광윤, 이성운, 2008; Crewe, 1990; Lee, 2004; Yoon, 2006),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에 사용된 방식 및 교수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작문 습관이나 모국어의 전이 등에 의해 기인된다고 지적된다(고광윤, 이성운, 2008; Crewe, 1990; Field & Yip, 1992; Yoon, 2006). 따라서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된다(Biber, Johansson, Leech, Conrad, & Finegan, 1999). 하지만 이러한 조언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요컨대, 원어민이 'however'를 적게 사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but'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문장은 'however'가 아닌 'but'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Garner, 2009; Strunk & White, 2007). 이런 점에서 이 두 어휘를 함께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but'은 회화체에서 선호되는 어휘이며 'however'는 학문적 산문에서 선호되는 어휘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원어민이 문어체 문장의 시작에 'however' 보다 'but'을 더 선호한다면 대조 연결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두 어휘를 함께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다(Bolton, Nelson & Hung, 2002; Field & Yip, 1992; Yoon, 2006; Zwicky & Kenter, 2007). 또한 이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이 두 어휘가 여러 연결사 중에 일부로 분석되면서 개별적으로 어휘의 빈도가 측정되지 않은 점이다. 둘째, 두 어휘가 대등한 수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도에 따른 어휘 선호도를 알기가 어려운 점이다. 즉 독립절을 연결하는 'however'와는 달리 'but'은 독립된 문장에 사용된 것만 검토된 방식이다. 셋째, 다소 정확한 사용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 상위수준의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글을 분석한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어민에 비해 비원어민이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두 대조 연결사(but, however)를 대등한 수준에서 비교·검토하며, 원어민의 자료라 해도 학습자의 글과 전문가의 글 사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Bolton et al., 2002), 더 정확한 사용 용례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상위수준의 글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장은 'however'가 아닌 'but'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이 두 어휘의 사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쟁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but'과 'however'의 사용 용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학습자가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에 대해 새로운 제언을 모색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결사 *however, but*

먼저 연결사 'however'는 작가의 주장으로 연결되는 대조적인 정보를 강조하는 어휘이다(Biber et al., 1999). 독립절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접속부사(conjunctive adverbial)이며, 기본적으로 내용상 차이가 발생할 때 사용된다. 즉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차이, 불확실성과 확실성 사이에서의 차이, 반의어나 반대되는 어휘에서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회화체에서 but과 같은 용도로 주제를 전환시키는 연결사의 역할도 하지만(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학문적 산문에서 작가들이 대조를 표현하는데 한결같이 선호되는 접속부사로 언급된다(Biber et al., 1999).

Biber 등(1999)에 의하면 접속부사의 위치는 대체로 한 문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군데에 위치한다. 즉 문장 또는 문장의 절(문절) 앞에 놓이거나, 문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거나, 또는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본 연구는 'however'의 사용에 대해 두 가지로 나뉘는 주장을 반영한다. 첫 번째는 문장은 'but'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however'는 문장의 안에 위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문장의 시작에 'however'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however'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은 가장 앞 자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BSC(Beginning of a sentence or clause)'와 'ISC(Inside of a sentence or clause)'로 표기하며 각각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Strunk & White, 2000, p. 51).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 (문장 또는 문절 앞: BSC)
> "The roads were almost impassable. However, we at last succeeded in reaching camp."
>
> (문장 안: ISC)
> "The roads were almost impassable. At last, however, we succeeded in reaching camp."

두 번째, 연결사 'but'은 대조의 의미를 표시하는 등위접속사로 두 개의 어휘나, 구 또는 절과 같이 문법적으로 같은 수준의 어휘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University of Chicago, 2010). 본 연구는 'however'와 대체 가능한 두 개의 독립절을 연결하는 'but'에 집중한다. 등위절에서 'but'의 사용은 등위절 앞에 마침표나 콤마를 찍거나 구두점 없이 사용된다. 이 접속사는 특히 같은 등위접속사인 'and' 보다 독립된 문장 앞에 자주 도입된다. 두 개의 독립절은 기본적으로 콤마로 연결이 되지만 절의 상대적인 길이에 의해 콤마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짧은 문장일 경우 사용은 선택적이다.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문장 또는 문절 앞: BSC)
“They had just arrived at their vacation retreat. But already they wanted to leave.”
“They had just arrived at their vacation retreat, but already they wanted to leave.”
“They had just arrived but they wanted to leave.”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학습자가 원어민에 비해 높은 빈도로 ‘however’를 선호하는 양상에 대해 새로운 제언을 모색해 보고자 ‘but’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however’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정리한 후 이 어휘와 ‘but’이 함께 분석된 연구를 살펴본다.

‘however’와 같은 접속부사는 학습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경우에 이런 연결부사가 없어도 문장 사이의 관계가 추론될 수 있기에 오히려 과하게 사용하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상 빈도를 연구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교육에 중요하다고 여겨진다(Conrad, 1999).

‘however’는 대체로 다양한 종류의 연결사나 표현과 함께 분석되고 있다. 담화의 종류나 코퍼스의 사이즈에 맞게 적절한 연결사의 빈도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Kim & Ahn, 2012), 다양한 연구 맥락에 따라 사용된 코퍼스의 빈도가 다를 수 있다. 원어민이 ‘however’를 비원어민 보다 많이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Chen, 2006), 대개 비원어민이 이 어휘를 비롯한 연결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고광윤, 이성운, 2008; 노정민, 2009; Back, 2012; Biber et al., 1999: Kim & Ahn, 2012; Lee, 2004; Lee & Na, 2015; Park, 2013; Ro & Na, 2012), 문두에 과도하게 위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광윤, 2008; 고광윤, 이성운, 2008; Kim & Ahn, 2012; Crewe, 1990; Yoon, 2006). 이에 대해 교사의 교수방법 및 교과서에 사용된 방식, 학습자의 작문 습관이나 모국어의 전이, 그리고 학습자의 잘못된 연결사 사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광윤, 이성운, 2008; Biber et al., 1999; Crewe, 1990; Field & Yip, 1992; Yoon, 2006). 학습자들은 잘못된 사용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문장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장 사이에 접속부사로 채우면 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장되거나 과하게 응집력을 가지는 문장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된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또한 문장자체에 설득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텍스트의 논리성과 타당성(logicality)을 추구하거나, 문체를 개선하려는 방법(stylistic enhancer)으로 이러한 접속부사를 사용한다고 지적된다(Chen, 2006; Crewe, 1990; Granger & Tyson, 1996). 따라서 글쓰기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사의 위치 및 관련 구두점을 포함한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조언된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however'가 'but'과 함께 분석된 연구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두 'but' 보다 'however'를 더 많이 사용한 사례(Bolton et al., 2002; Field & Yip, 1992; Yoon, 2006)와 'however' 보다 'but'이 더 많이 사용된 사례(Kim & Ahn, 2012; Jangarun & Luksaneeyanawin, 2016)로 나뉜다. Bolton 등의 연구에서는 준거 코퍼스로 사용된 출판된 문어체 글에 비해 영국 학생들과 홍콩 학생들이 'however'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but'은 준거 코퍼스에 비해 영국 학생들은 적게, 홍콩 학생들은 많이 사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독립절을 연결하는 'however'와는 달리 'but'은 독립된 문장에 사용된 것만을 검토하였기에 분석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어휘(but, however)가 상대적으로 사용된 정확한 빈도를 알기는 어렵다. 또한 Field와 Yip의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어휘의 빈도를 검토하지 않았기에 두 어휘 사이의 사용빈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Jangarun와 Luksaneeyanawin의 연구에서는 두 어휘가 대등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원어민은 두 어휘 중에서 'but'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however'도 빈도상 큰 차이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원어민의 두 집단은 'but'의 사용빈도에 비해 'however'는 절반보다 적게 사용하였거나 조금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어휘가 함께 분석된 연구 중에서 Bolton 등(2002)은 준거 코퍼스로 상위수준의 출판된 문어체 글을 적용하였다. 또한 Zwicky와 Kenter(2007)도 최상위 학술가 등으로 구성된 상위수준을 지닌 원어민들의 글에서 사용된 대조 연결사를 검토하였는데, 원어민들은 문두에 'however' 보다 'but'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원어민들의 자료만 비교한 것이라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검토된 자료가 상위수준이라는 점에서 두 어휘의 선호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배경: however와 but에 대한 논쟁

연결사인 'however'의 사용에 대해 이 어휘를 문장의 시작에 사용하기보다 문장의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며 어떠한 맥락에서도 문장은 'but'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however'를 문장의 시작에 사용해도

무관하거나 괜찮다고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

먼저 대조 연결사의 의미인 'nevertheless'나 'but'으로 사용되는 'however'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이 아닌 문장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Strunk(1918)와 Garner(2009)이다. 이들은 이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in whatever way)' 또는 '어떤 정도까지든지(to whatever extent)'와 같은 양보의 의미일 때 문두에 확실히 위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Strunk & White, 2000, p. 51).

"However you advise him, he will probably do as he thinks best."

"However discouraging the prospect, he never lost heart."

따라서 'however'로 대조의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더라도 문체상 잘못된 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즉 대조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의 시작에 'however' 보다 'but'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다음의 문장은 'but'으로 시작을 하면 더 좋은 표현이 된다(Garner, 2009, p. 428).

"However, Washington voters rejected an industry-backed attempt to paralyze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Referendum 48, the so-called 'property rights' initiative."
(Better: *But Washington voters* ....)

Garner(2009)에 의하면 수많은 스타일 북이 문장의 시작에 'however' 보다 'but'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20세기와 21세기 수많은 작가들[1]도 문장의 시작에 자주 'but'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상위 작가들도 문장의 8.75%는 등위접속사(and, but)를 사용하여 시작한다고 언급된다. 따라서 Garner는 'but'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문체를 대충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어떠한 맥락에서도 'but'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러 학자의 언급을 토대로 'but'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콤마를 사용하지 않기에 빠른 전환과(Baker, 1962), 산문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Trimble, 1975). 둘째, 'but'은 문장 사이와 문단과 같은 담화의 큰 단위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Pence & Emery, 1963). 셋째, 문장의 서두에 'but'을 써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1] 예: 저서 The Other Wind(Le Guin, 2001).

근거가 없다(Burchfield, 1992). 넷째, 음독(silent reading)에서 적용이 되는 소리의 중요성으로 문장 안에 'however'가 놓일 때 훨씬 듣기가 좋은 표현이 된다(Payne, 1965). 마지막으로 Garner는 콤마가 수반되는 3음절에 해당하는 'however'는 대조의 의미를 도입하기에는 무겁고 지루한 면이 있으며 어조가 덜 강한 내용을 만들어 낸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however'로 대조를 표현하는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더라도 분명 문체상 잘못된 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however'는 어떤 경우에도 콤마 사이에 또는 문장 안에 놓일 때 최상으로 작용하는 어휘가 된다. 또한 이렇게 문장 안에 사용될 때 이 어휘는 선행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다음의 문장은 여행을 갈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Jane이 대비된 것이다(Garner, 2009, p. 428).

"Jane, however, wasn't able to make the trip."

하지만 문장 안에 'however'를 사용할 때 긴 문장에서는 'however'를 멀리 떨어진 후미에 배치하기 보다는 'but'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however'를 두 번째 절의 시작에 위치시키기보다 'although'로 시작하는 종속절의 형태로 문장을 전환하면 더 나은 표현이 된다고 덧붙인다.

반면 Pullum(2010)과 Fogarty(2013)는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콤마 없이 사용한 'however'는 양보의 의미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문장의 시작에 'however'를 쓰고 콤마를 적용하면 'nevertheless'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조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즉 콤마의 사용을 통해 'however'가 수식어인지, 또는 연결사의 의미인 'nevertheless'가 되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문장의 시작에 이 어휘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Fogarty(2013)는 'however'의 사용 방식을 잘 인지하면 문장의 시작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에 이 어휘로 문장을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고전적인 문법학자들의 조언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작가들도 'however'를 문장의 시작에 사용하면 문장 사이의 연결이 더욱 분명하게 되어 텍스트를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이 어휘를 선호한다고 언급한다(Fogarty, 2013). 그녀는 Garner(2009)를 포함하여 *The Little, Brown Essential Handbook*(Aaron, & Bander, 2011)과 같은 최근의 문법 지침서들도 'however'로 시작된 문장을 오류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문장의 앞자리에 'however'를 놓고 싶지 않다면 뒤에 따라오는 절의 앞에 세미콜론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단지 독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또는 예외로 입사 지원서의 자기 소개서에는 문장 가운에 'howeve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Pullum(2010)도 사용이 모호하다고 해서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결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Alice's Adventures in the Wonderland*(1985)의 작품에서 Lewis Carroll은 콤마를 수반한 'however'를 문절의 앞에 19번 사용하였고, Mark Twain[2]의 작품에도 이 어휘의 삼분의 이가 문장 또는 문절 앞(BSC)에 위치되었고, 또한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작성된 Wall Street Journal에도 이 어휘의 40%가 문두에 사용되었다고 언급한다. 이어서 그는 이 어휘의 6.3%만을 문절 앞에 위치시킨 Henry James의 예를 들어 이 어휘의 위치는 작가의 선호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trunk는 모든 이의 작문 습관을 Mark Twain이 아니라, Henry James[3] 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문장이나 문절의 시작에 대조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however' 보다 'but'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과 사용 용례를 잘 이해하면 'but'과 마찬가지로 'however'도 대조의 의미로 문장의 시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IV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코퍼스

원어민 코퍼스(AET)는 시중에 판매되는 미국의 읽기(Reading) 교과서로 만든 '미국교과서를 듣고 받아써 보자 2'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2001년에 출간된 교재로 내용은 서론, 추론, 비판적 글 읽기, 동의어와 반의어, 문맥의 단서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 그리고 단어의 일부분들의 총 7개의 단원아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읽기 자료 아래에 짧은 문장과 표현들로 이루어진 이해점검 문항들을 제외하고 AET로 구축하였다. 그런 후 가독성 측정 방식(Flesch Reading Ease test[4])에 의해 7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71.0의 지수를 산출하였다(Wikipedia, 2017).

비원어민 코퍼스(KET)는 2009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와 두 가지 종류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용으로 구축하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사 별로 능률교육(김임득

---

[2] Mark Twain 검색 창에서 Mark twain의 6개 작품을 검토한 내용(Liberman, 2005).
[3] Henry James Concordance를 사용하여 Henry James의 5개 작품을 검토한 내용 (Liberman, 2005).
[4]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산출된 지수가 높을수록 읽기 자료는 쉬워진다. 산출된 지수가 80.0-70.0 사이에 해당하는 읽기 자료는 7학년 수준을 의미함.

등), 두산동아(김성곤 등), 비상교육(이석재 등), YBM(신정현 등), 지학사(양현권 등), 미래엔(배두나 등), 그리고 세 종류의 천재교육(정사열 등, 이재영 등, 김진완 등) 교과서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초영어 교과서인 YBM(신정현 등)과 능률교육(이찬승 등), 그리고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서인 금성출판사(이의갑 등)와 YBM(박준언 등)에서 내용을 발췌하였다. 그런 후 AET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읽기 수준을 의미하는 70.0의 가독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구축된 코퍼스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코퍼스

	토큰	타입	문장
KET	14,787	3,023	1,170
AET	14,782	2,649	1,150

KET가 구축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AET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 한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두 가지 종류(기초영어와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의 교과서에 걸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중학교 3학년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두 가지 종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교과서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AET의 자료와 비슷한 수준의 어휘, 문장, 구조 등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발췌하여 최종 읽기 수준을 측정하여 한국 코퍼스로 선정하였다.

2.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WordSmith Tools 7.0을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을 하였다. 'however'와 'but'은 독립절을 연결하는 대조 연결사로 사용된 어휘들을 비교·검토하였다. 분석절차는 먼저 연결부사에 대한 Biber 등(2002)의 분류방식에 따른 대조와 양보 영역에 'but'을 포함하여 이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연결사의 빈도를 살펴보면서 'but'과 'however'의 사용 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런 후 두 연결사가 사용된 정도를 단어 10,000개당 빈도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결사 사용에 대한 논쟁(3장)을 바탕으로 'however'와 'but'이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사용된 빈도와 문장 안에 사용된 빈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코퍼스를 분석한 관련 연구사례를 검토하였다.

V. 교과서 비교·검토

1. 대조와 양보 영역의 연결사

먼저, 대조·양보 영역에 포함되는 연결사들은 'however'나 'but'을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 두 어휘의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전체 빈도를 살펴보았다. KET와 AET가 가장 많이 사용한 연결사는 'however'와 'but'으로 두 교과서에서 비슷하게 대조·양보 영역을 대표하는 어휘로 나타났다. 또한 KET에서 6번 사용된 'in fact'를 제외하고는 그 외 어휘들은 3, 4번 이하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but'과 'however'의 빈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KET와 AET의 대조와 양보 영역의 연결사 비교

KET			AET		
순위	대조/ 양보	빈도(%)	순위	대조/ 양보	빈도(%)
1	however	38(42.7)	1	but	60(75.9)
2	but	37(41.6)	2	however	13(16.5)
3	In fact	6(6.7)	3	In fact	3(3.8)
4	though	4(4.5)	4	After all, instead, yet	2(2.5)
5	instead	3(3.4)	5	Anyway, though, still	1(1.3)
6	After all, or	1(1.1)	6	없음	
합계		89(100)			79(100)

2. KET와 AET에서 however와 but 빈도

먼저 KET에 사용된 'however'의 10,000개 당 빈도는 25.7개이며 이 어휘에 대한 AET의 10,000개 당 빈도는 8.8개로, KET가 AET에 비해 약 3배 많이 사용하였다. KET의 'but'은 10,000개 당 빈도가 25.0개이며 이 어휘에 대한 AET의 10,000개 당 빈도는 40.5개로, KET가 AET에 비해 약 절반 정도 사용하였다.

표 3

KET와 AET의 however와 but의 빈도

코퍼스	연결사	빈도	단어 10,000개 당 빈도
KET	however	38	25.7
	but	37	25.0
AET	however	13	8.8
	but	60	40.5

전반적인 차이는 첫째, KET는 AET에 비해 높은 빈도의 'however'를 사용한 대신 'but'은 낮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두 대조 연결사의 자체적인 사용빈도는 비슷하다. 둘째, AET는 'however' 보다 'but'을 전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KET는 'however'의 상대적 빈도는 높지만 대체로 두 대조 연결사를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양상이고, AET는 'however' 보다 'but'을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양상이다.

3. KET와 AET에서 however와 but 위치 비교

'however' 보다 'but'을 문장이나 문절의 시작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however'로도 문장이나 문절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KET와 AET의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두 코퍼스에서 드러난 차이는 첫째, AET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BSC)에 상당히 많은 'but' (82.2%)을 사용한 대신 'however'는 매우 빈약한 양(1.4%)만 사용하면서 대부분 문장 안(ISC)에 위치시켰다. 둘째, KET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AET에 비해 'but'은 거의 절반(49.3%)만 사용하였다. 대신 'however'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AET의 사용 양(1.4%)에 비해 약 27.5배가 되는 38.7%를 사용하면서 문장 안에 사용한 양(12.0%)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KET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but'과 'however'를 각각 49.3%와 38.7%를 사용하여 두 연결사를 함께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KET와 AET의 however와 but의 위치

연결사	위치	KET		AET	
		빈도	비율	빈도	비율
however	BSC	29	38.7	1	1.4
however	ISC	9	12.0	12	16.4
but	BSC	37	49.3	60	82.2
합계		75	100	73	100

결과적으로 AET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으로 'but'을 사용하고 'however'는 문장 안에 사용할 것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Garner, 2009; Strunk, 1918). 반면 KET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but'과 함께 'however'의 사용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해당한다(Fogarty, 2013; Pullum, 2010). 따라서 한국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에 비해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어휘 선택에서의 차이가 된다. 즉 KET가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but'보다 상대적으로 'however'를 높은 빈도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원어민의 사용 양상은 'but'은 일반적으로 구어체에 적절하다는 통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고광윤, 이성운, 2008; Back, 2012; Biber et al., 1999; Crewe, 1990; Lee & Na, 2015; Park, 2013; Ro & Na, 2012; Yoon, 2006)에서 비원어민이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에 대해 모국어의 전이, 논리성의 추구 및 문체를 개선하려는 의도, 학생들의 작문 습관이나 잘못된 연결사 사용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표 4에서처럼 KET가 대조연결사인 'but'은 원어민보다 적게 사용하고 'however'는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문적 산문에서 두 어휘가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이나 문장 안에 선호되는 정도를 교육적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4. KET와 AET에서 however가 사용된 예시

다음은 문장 또는 문절 앞(BSC)에 'however'의 선호도를 보이는 KET의 자료와 적은 빈도지만 문장 안(ISC) 선호도를 보이는 AET의 자료이다.

그림 1

문두를 선호하는 KET의 however

these people to become successful. However, sometimes they did. Faraday's story pro
derstand how the natural glue works. However, they have figured out how to copy this s
pocket. Therefore, it's not an asset. However, there are places where cash reproduces
nputer, TV, a cell phone, and so on. However, here's the catch. Although you may belie
ney and investing it for reproduction. However, having good spending habits is importa

그림 2

문장 안을 선호하는 AET의 however

and it looked safe. During the stunt, however, the jeep traveled about 10 feet farther
fish to come to the top. Sometimes, however, they will prey on wild land animals or e
had never played in the NFL. Today, however, there are as many black pro football p
's choice was football. After college, however, Washington had trouble pursuing that

위와 같이 KET는 'however'의 문두 사용을 선호하는 반면 AET는 이 어휘를 적은 빈도로 사용하면서 대부분 문장 안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5. 전문가 집단의 코퍼스와 비교

이번에는 KET와 AET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코퍼스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개의 통신사(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Reuters)에서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두에 사용된 'but'과 'however'를 비교한 것이다. 상위수준의 자료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정확한 사용 용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통신사 코퍼스에서 however와 but 위치

Group	But (비율)	However (비율)	But/However
NYT	499,320 (95.7)	22,650 (4.3)	22.04
WSJ	107,235 (94.1)	6,763 (5.9)	15.86
Reuters	129,200 (94.4)	7,597 (5.6)	17.01

출처: Zwicky & Kenter(2007)

세 통신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사용 측면에서 지역적인 차이 또는 작가의 선호도라기보다 통신사의 규칙이나 편집관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집단은 'but'에 비해 'however'는 상당히 빈약한 정도만 사용하였다. 즉 상위수준의 전문가들은 문두에 'however'가 아닌 'but'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AET의 코퍼스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번에는 편집과정을 거치는 통신사 코퍼스와는 달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최상위 학술가들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2006년 4월에서 7월 사이 'Language Log[5]'에 30번 이상의 게시를 한 저술가들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저명한 학술가들도 대체로 문두에 'however' 보다 'but'을 선호하였다. Liberman을 제외한 세 명의 학술가들은 학문적인 글쓰기에 'however'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문두에 'however' 보다 'but'의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본 연구가 분석한 AET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Liberman이 상대적으로 'however'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어휘는 높은 비율로 사용되지는

[5] Language Log 는 음성학자인 Liberman 에 의해 유지되는 공동의 언어 블로그로, 대중문화 및 매체에서의 언어사용, 그리고 기술주의와 규범주의 논쟁이나 언어 관련 기사에 중점을 둔다(Wikipedia, 2017).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대조 연결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상위수준의 코퍼스에서 however와 but 위치

저술가	But (비율)	However (비율)	Postings	But/However
Liberman	115 (75.2)	38 (24.8)	152	3.03
Zimmer	46 (95.8)	2 (4.2)	53	23
Pullum	57 (98.3)	1 (1.7)	46	57
Zwicky	40 (100)	0 (0)	30	8

출처: Zwicky & Kenter(2007)

다음은 'but'과 'however'를 함께 분석한 자료는 아니지만 출판된 미국의 문어체 텍스트와 한국의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것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고광윤(2008)은 현대 미국 영어 코퍼스라 불리는 Frown 코퍼스와 한국의 7종 영어 교과서(KHERC)로 구성된 코퍼스에서 문두, 문중, 문미에 위치한 'however'의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 교과서는 'however'를 문두에 선호하는 반면 미국의 현대 영어는 문두가 아닌 문중에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
Frown과 한국 영어 교과서에서 however 비교

코퍼스 \ 위치	문두	문중	문미	합계
KHERC	34 (64.2)	19 (35.8)	0 (0)	53 (100)
Frown	19 (34.5)	35 (63.6)	1 (1.8)	55 (100)

출처: 고광윤(2008)[6]

Frown 코퍼스가 약 100만 단어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 원어민들이 문장의 문두에 사용한 'however'의 빈도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문두에 'but'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본 연구가 분석한 AET의 사용 양상과 다소 비슷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AET는 대조 연결사로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however' 보다 'but'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사용된 'however'는

[6] 고광윤(2008)은 83,311 개의 단어로 구성된 7 종 영어 교과서와 문어체 텍스트로 약 100 만 단어로 구성된 현대 영어코퍼스인 Frown 코퍼스를 분석하였다.

문장 안에 배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KET는 자체적으로는 두 어휘의 사용빈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AET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문장이나 문절 앞에 사용된 ‘however’의 빈도가 높고 ‘but’의 빈도는 낮은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에 비해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어휘 선택에서의 차이로 보여진다. 즉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원어민에 비해 ‘but’ 보다 상대적으로 ‘however’를 높은 빈도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원어민에 비해 학습자가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을 심층적으로 접근해보고자 ‘however’와 이 어휘 대신 사용 가능한 ‘but’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을 검토한 후 상위수준의 글인 교과서에 나타난 두 어휘를 비교·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교과서에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however’가 아닌 ‘but’을 선호하고 빈약한 빈도로 사용된 ‘however’는 대체로 문장의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미국 교과서에 비해 ‘however’는 약 27.5배(38.7%/ 1.4%)나 많이 사용하고 ‘but’은 대략 절반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교과서 자체에서 이 두 어휘의 사용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 교과서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 연결사로 ‘but’이 효과적이며 ‘however’는 문장 안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Garner, 2009; Strunk, 1918). 또한 전문가 집단의 코퍼스 비교를 통해(Zwicky & Kenter, 2007) ‘however’는 문장의 시작에 사용되더라도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어민의 사용 양상은 ‘but’은 회화체에서 선호되는 어휘이며 ‘however’는 학문적 산문에서 선호되는 어휘라는 통념과는 다르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but’과 함께 ‘however’의 사용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Fogarty, 2013; Pullum, 2010). ‘however’의 사용빈도가 원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과서에서 이 어휘는 문어체에 좀 더 선호되는 연결사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서 비원어민이 원어민에 비해 과도하게 ‘however’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에 ‘but’ 보다 상대적으로 ‘however’를 높은 빈도로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습자 또는 상위수준의 비원어민이 ‘however’와 같은 연결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원인으로 교수방법 및 모국어의 전이, 학습자의 작문 습관 등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사용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물론 이 연결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문장자체에 설득적인 증거는 없이 단순히 텍스트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추구하고자 이 어휘를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사용 용례가 다소 정확한 상위수준의 글에서도 비원어민이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과도한 사용에 대해 새로운 교육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 문장 또는 문절의 시작으로 ‘but’이 적절하며 ‘however’는 문장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however’가 문장의 시작에 사용되더라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영어 교과서는 집필과정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원어민이 사용하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고광윤, 2008; Kang & Kim, 2008), 영어의 사용에서 점점 다양한 종류(world Englishes)가 인정이 되고 있고(Kirkpatrick, 2014; Yook & Ryu, 2015), 또한 언어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개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however’는 어떤 다른 어휘들보다도 원어민에 비해 비원어민이 매우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고 있고(고광윤, 2008),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의 과도한 사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사용 용례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상위수준의 원어민이 사용한 방식을 참작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참작하여 영어교육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however’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양상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영어교육 상황에서 사용 용례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원어민 자료를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게 학습자료로 재구성하여 대조 연결사를 익히는 쓰기 학습에 사용한다면 과도한 사용을 줄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어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사용 양상을 제시하는 영어 교과서와 관련 교재의 개발에도 본 연구결과가 반영이 된다면 대조 연결사의 사용 양상을 익히는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코퍼스 분석에서 원어민이 ‘however’를 더 많이 사용한 사례(Chen, 20006)가 있고, 여전히 ‘however’와 ‘but’의 사용에 대해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다. 또한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본 연구가 많은 양의 코퍼스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후속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더욱 발전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광윤. (2008). 교과서 영어의 영어다움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기능어의 쓰임을 중심으로. *영어학연구*, *26*, 1-19.

김임득, 이병춘, 김기호, 김현주, 장은경, 고사리, 김소영, 김영선, 서세정,

오정은, 이영갑, 이헌주, Rubadeau, K. (2015).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능률교육.

김성곤, 윤정미, 강은경, 이희경, 유원호, 윤여경, 장성욱, 주혜연, 박성민, 손지선, Haas, J.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동아.

김진완, 안병규, 오준일, 김순천, 박성근, 신수진, 조성옥, 조현정, 김보라.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배두본, 이상민, 전병만, 조일제.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미래엔.

박준언, 최성희, 최선영, 최지영, 백지원, 오동수, 최송이, 강애진, 김은영, 김하영, 백지숙, 김진수. (2013).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서울: YBM.

신정현, 김혜리, 김명희, 최선희, 김은실, 임지현, 송봉선, 한이경, 이수하, 김지영,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15).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YBM.

신정현, 장윤옥, 신희섭, 박일형, 김수연, 윤병우, 이신애, 서윤석, 전훈숙, 이혜은, 박지혜, 정두섭, 마선미. (2013). *(High school) Basic English*. 서울: YBM.

양현권, 황종배, 이창수, 민병천, 김태영, 이동환, 이주연, 박은경, 정경아, 김민영. (2015).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지학사.

이석재, 유호열, 김형남, 김지영, 예진희, 유우영, 노윤오, 황혜경, 최은영, 고혁, 박은진, 김미영, 이새롬,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13).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비상교육.

이의갑, 김진형, 이후고, 김현진, Middletion. C. (2013).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서울: 금성출판사.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오영일, 조수경, 김지민, 이유미, 안혜정, 이소현, Fraser. J. R. (2015).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이찬승, 전영주, 이석영, 정태은, 김지현. (2013). *(High school) Basic English*. 서울: 능률교육.

정사열, 이성림, 홍숙한, 강윤희, 이현주, 성현영, 박유진, 윤현정. (2016).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김영숙. (2001). *미국교과서를 듣고 받아써 보자 2*. 서울: 미국영어사.

고광윤, 이성운. (2008). 한국 영자신문 영어의 코퍼스 바탕 연구. *언어연구, 23*(4), 601-619.

노정민. (2006).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 사설에서의 설득장치 비교: 전개구조와 입장표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aron, J. E., & Bander, E. (2011). *The little, brown essential handbook for writers*. Toronto: Pearson Canada.

Back, J. H. (2012). A corpus-based study of adverbial connectors in Korean EFL students' academic writing. *Studies in Modern Grammar*, *69*, 117-147.

Baker, S. (1962).*The practical stylist*.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Biber, D., Johan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UK: Longman.

Bolton, K., Nelson, G., & Hung, J. (2002). A corpus-based study of connectors in student writing: Research from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in Hong Kong (ICE-HK).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7*(2), 165-182.

Burchfield, R. W. (1992). *Points of 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rroll, L., & Hudson, G. M. (1985).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London: Bracken Books.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Rowley, MA: Newbury House.

Chen, C. W. (2006). The use of conjunctive adverbials in the academic papers of advanced Taiwanese EFL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1*(1), 113-130.

Conrad, S. M. (1999). The importance of corpus-based research for language teachers. *System*, *27*, 1-18.

Crewe, W. (1990). The illogic of logical connectives. *ELT Journal*, *44*(4), 316-325.

Field, Y., & Yip, L. (1992). A comparison of internal conjunctive cohesion in the English essay writing of Cantonese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of English. *RELC Journal*, *23*(1), 15-28.

Fogarty, M. (2013). *Starting a sentence with "however": Right or wrong?.*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quickanddirtytips.com/education/grammar/starting-a-sente nce-with-however-right-or-wrong?page=2.

Garner, B., A. (2009).*Garner's modern American us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anger, S., & Tyson, S. (1996). Connector usage in the English essay writing of native and non-native EFL speakers of English. *World Englishes*, *15*(1), 17-27.

Jangarun, K., & Luksaneeyanawin, S. (2016). Discourse connector usage in argumentative essays by American and Thai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0*(1), 95-112.

Kang, J. W., & Kim, H. J. (2008). An analysis on the practical usage of the world *look*.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25-49.

Kim, H. S., & Ahn, S. H. (2012). A corpus-based study of connectors in editorials of Korean and American English newspaper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5*(4), 61-79.

Kirkpatrick, A. (2014). World Englishes. In C. Leung & B. V. Street(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English studies* (pp. 33-45). New York: Routledge.

Lee, E. J. (2004).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Korean EFL learners' use of conjunctive adverbials. *English Teaching*, *59*(4), 283-301.

Lee, S. B., & Na, Y. H.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f adversative linking adverbials in argumentative writing corpora.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0*(4), 1015-1014.

Le Guin, U. K. (2001). *The other wind.* New York: Harcourt.

Liberman, M. (2005). *Language log: The evolution of disornamentation*.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itre.cis.upenn.edu/~myl/languagelog/archives/001912.html.

Park, Y. Y. (2013). How Korean EFL students use conjunctive adverbials in argumentative writing. *English Teaching*, 68(4), 263-284.

Payne, L. V. (1965).*The lively art of writing*.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mpany.

Pence, R. W., & Emery, D. W. (1963). *A grammar of present-day English*. New York: Macmillan.

Pullum, G. K. (2010).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elements of style. *English Today, 26*(2), 34-44.

Ro, S. H., & Na, Y. H. (2012). Use and misuse of linking adverbials: A corpus-based study on NS and NNS writings. *English21*, *25*(3), 291-317.

Strunk, W. (1918). The elements of style.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rockford.com/wrrrld/style.html.

Strunk, W. , & White, E. B. (2000). The elements of style.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jlakes.org/ch/web/The-elements-of-style.pdf.

Trimble, J. R. (1975).*Writing with styl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University of Chicago. (2010). The Chicago manual of style onl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hicagomanualofstyle.org/16/ch05/ch05_sec207.html.

Wikipedia. (2017*). Flessh-Kincaid readability tests*. Retrieved May 25,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en.wikipedia.org/wiki/Flesch-Kincaid_readability_tests.

Wikipedia. (2017*). Language log*.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en.wikipedia.org/wiki/Language_Log.

Yook, C. M., & Ryu, H. Y. (2015). World Englishes and Culture Teaching in the Korean EFL Contex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1*(3), 195-211.

Yoon, H. S.(2006). A corpus-based analysis of connectors in Korean students' essay writing.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2*(2), 159-178.

Zwicky, A. M., & Kenter, D. W. (2007*). Avoid vagueness? The case of sentence-initial linking however*.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eb.stanford.edu/~zwicky/however.SemFest. out.pdf.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Tertiary

김향숙
한양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Email: heartk012@hanyang.ac.kr

Received in April 14th, 2017
Reviewed in May 26th,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5th, 2017